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7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11일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세계양궁대회 개최…'활의 도시' 광주서 세계를 쏜다

5~12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2~28일 장애인양궁선수권 개최
오프닝쇼 3일 전일빌딩 앞 무대
90개국 참여…5·18광장서 결승전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양궁대회 특별취재팀

팀장=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김진수 사진부 차장
정병호 정치부 기자
김진아·서민경 사회부 기자
박연수 디지털·체육부 기자

'활의 도시' 광주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양궁연맹(WA) 총회(2~3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5~12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22~28일)가 잇따라 광주에서 개막한다.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은 중계화면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돼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과 정신을 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 160개국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세계 양궁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총회다.

총회 개막식은 2일 오전 9시에 진행되며 총회 이틀 차인 3일에는 연맹 회장단과 임원 선출이 이뤄진다. 선수권 대회 규정 개정, 심판 조직, 윤리·행동 강령 법률안 발의 등 핵심 안건이 결정된다. 총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 회의로, 이번 회의 결과가 국제대회 운영과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세계 양궁인의 잔치인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90여개국에서 900여 명(장애인대회 50여개국 400여 명 포함)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 김제덕, 이우석, 임시현 선수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안산 선수 등 대한민국 간판선수들이 출전한다.

양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쇼 '활의 나라'는 3일 오후 6시 30분 금남로 전일빌딩 245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져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금남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변모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첫 무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 시연과 신명나는 농악 퍼레이드로 막을 연다.

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공 기원 세리머니와 인기 가수 알리·노라조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광주시는 300여 명의 시민 자원봉사단과 시민 서포터즈 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모두의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여대 교수) 등 광주 출신 양궁 영웅들도 대회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광주을 상징하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5·18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로, 조직위는 결승전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담은 화살이 억압을 뚫고 전세계로 확산된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세계 전할 계획이다.

대회 슬로건 'The Echo of Peace(평화의 울림)' 역시 화살이 과녁에 명중할 때 울리는 메아리에 광주의 평화 정신을 실어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광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활의 도시'의 자긍심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서향순, 장용호,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한 도시로 세계 양궁계를 선도하고 있다. 시는 양궁 인프라와 저력,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공의 복귀 …지역 수련병원 환자들 반응 ▶6면
굿모닝 예향 - 남도 체험로드 '영광'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멀어지는 가을야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센터 광주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추진위 출범

인프라·전력·인재 갖춘 최적지
시민 서명운동·정부 설득 본격화

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유치하려고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설득전을 본격화했다.

출범식은 광주 AI 산업 추진 경과와 컴퓨팅센터 유치 필요성 발표로 문을 열었고, 주요 인사 환영사와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로 열기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여야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단과 산업계·경제단체·언론·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해 '광주의 최적 입지'를 함께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인프라·전력·사람이 갖춰진 곳은 광주"라고 강조했고, 이 부의장은 "전력 수급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선택은 호남, 그 중 광주"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혁신의 중심이 될 컴퓨팅센터가 광주에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유치위에는 행정과 국회, 기업·산업계, 지역은행과 경제단체, 대학, 복지·의료계, 언론, 민간단체가 폭넓게 참여했다.

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산업계 인사 등 1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정세균 전 총리, 이학영 부의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문단으로 합류했다.

광주시는 시민유치위원단 모집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해 동력을 키우고, 위원회는 유치 전략 자문, 대정부 건의와 전문가 네트워킹,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알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캠퍼스 복귀…전공의 지원율 60%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이 1일 캠퍼스로 돌아왔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캠퍼스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이날 개강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수련병원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 지원율은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지역 주요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 결과 정원의 65.8% 가량 충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하반기 인턴 108명, 레지던트 1년차 102명, 상급년차 180명 등 총 39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지원자는 244명(63%)에 그쳤다.

조선대병원은 인턴 35명, 레지던트 1년차 45명, 상급년차 79명 등 총 159명 중 122명으로 76% 지원율을 보였으며, 광주기독병원은 전체 정원의 50% 지원에 머물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지원율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9명을 모집했으나 1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는 정원 5명 중 2명, 응급의학과는 정원 12명 중 8명만 지원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외과 또한 8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전남대병원(화순분원 포함)도 소아청소년과 16명을 모집했으나 3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산부인과는 10명 중 4명, 응급의학과는 18명 중 7명, 외과는 16명 중 4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